

# 100년 묵은 토지 분쟁, 위성측량으로 해소

### 구례군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 마산 사도 등 3개 지구 마무리 '첨단 디지털 지적' 경계 결정

구례군이 위성측량 기준점을 활용한 최첨단 디지털 '지적(地籍) 재조사사업'을 통해 100년 묵은 토지 분쟁을 없앴다.

구례군은 "지난해 2월부터 '바른 땅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마산 사도지구(113필지, 11만1836.4㎡), 광의 대산지구(479필지, 14만5707.2㎡), 산동 외산지구(156필지, 7만2168.4㎡) 등 3개 사업지구(총 748필지 32만9712㎡)의 지적 재조사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2월 민원봉사과장을 단장으로 한 '지적재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마산면 사도지구의 경우 1965년 등록 당시 개간된 토지의 위치가 잘못 등록됐고, 광의면 대산지구는 위 도면과 아래 도면이 벌어져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산동면 외산지구는 1910년대 만들어진 지적도가 왼쪽으로 5m가량 밀려있어 측량기간 경계결정 차에 따라 새로운 불부합(不符合)이 만들어져 현실경계와 차이가 컸다.



구례군이 지난해부터 2년간 진행해온 지적 재조사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토지측량중인 구례군 공무원.

군이 주관한 주민설명회(5회)와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 결정체인 토지소유자협의회 총회(1회) 등 총 6회 410명이 참석해 토론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경계를 지난 6월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결정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이달 11일 지적재조사 위원회(위원장 서기동 군수)에서 결정한다.

현재 구례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 도면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14만5000 필

지)에 사정등록됐다. 그러나 측량 당시의 불부합이 2만2000필지(전체의 15%)이며, 세월이 흐르면서 경계가 달라지는 등 이로 인한 지적불부합이 9만4000 필지(전체의 64.5%)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과 민원발생 소지가 높았다.

군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현실점유 현황대로 새롭게 경계를 설정했다. 또 새마을 사업 당시 도로가 있었으나 도

면상 도로가 없었던 맹지(盲地)를 국유지 도로로 등록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조치로 도로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소유권 분쟁을 없애는 등 토지이용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군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 17일자로 종전의 지적을 폐쇄하고, 새로 작성된 도면과 대장을 정리한 후 구례등기소에 등기축적했다. 30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구례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국의 우수사례로 선정돼 30일 오전 KBS2를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군은 내년도 ▲구례 북북 백련지구 100필지(3만5031㎡) ▲문척 토금지구 541필지(35만4417㎡)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이 위성측량 기준점을 활용한 '최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경계 결정돼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경계설정함으로써 토지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구례주민들로 구성된 구례읍 합창단(지휘자 김성진)이 최근 섬진아트홀에서 불우이웃돕기 창단공연 무대를 갖고 있다. <구례군 제공>

## 구례읍 합창단 '사랑의 화음' 감동 무대

### 불우이웃돕기 창단 공연

구례읍 합창단(지휘자 김성진)이 사랑의 하모니로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구례읍 합창단은 최근 구례읍 섬진아트홀에서 최성현 부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우이웃돕기 창단 공연을 가졌다. 구례읍 합창단은 구례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31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은 동요 모음곡과 실버벨 등 8곡의 합창곡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김

경화, 테너 진승현, 소프라노 정은지·김소은, 알토 황의경의 특별 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구례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손근배)는 공연 수익금 전액을 구례읍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해 세밀을 훈훈하게 했다. 구례읍 합창단 관계자는 "지난 7월 창단 이후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합창단원들의 뜨거운 노력과 열정으로 완벽한 화음을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습해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군민의 노래, 애국가 등을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 고흥읍 윤경숙씨 2층 단독주택 최우수상

### 고흥군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5개 작품 선정

고흥군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공간 구현과 건축물 패션을 위해 9년째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을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흥군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 774동 가운데 출품된 22개 작품을 대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 23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5작품을 선정·시상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윤경숙(고흥읍 성촌리·사진) 씨의 2층 단독주택 건축물(포커스 건축사사무소 이성진 설계)이 차지했다.

건축물은 '아름다운 정적'이란 작품명으로 전체적인 입면 구성을 정적으로 잘 표현했으며,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후면 외벽은 목재로 장식해 부드러움을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의



주거환경 등 주변 경관과 조화가 안정적이라고 평가됐으며 1층은 가족만의 공간, 2층은 휴식 및 서재공간으로 구성해 방문객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군 이미지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우수상에는 장지현(대서면 안남리) 씨의 '오렌지향기'란 유럽풍의 주택과 정숙경(도덕면 신양리) 씨의 전통 한옥주택이, 장려상에는 신태권(과역면 과역리) 씨의 '다솜'이란 단독주택, 김자현(고흥읍 호현리) 씨의 '소통' 단독주택이 각각 수상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 곡성 '솜사탕 음악회'

### 내일 문화센터 동아홀

곡성 지역민이 함께 꾸며가는 '솜사탕 음악회'가 30일 곡성 문화센터 동아홀에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지난 2011년 창단한 곡성 문화예술단은 지역문화 공유와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솜사탕 음악회'를 9월부터 매달 30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아두 2014' 음악회는 7080 노래와 민요, 무용이 함께 펼쳐지는 무대로 알차게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신청받아 고마운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회 공감 퍼포먼스를 펼친다. 또한 관람자에게 달콤한 사탕과 쿠키, 행운이 가득한 희망 복권 20매가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공연을 준비한 곡성 문화예술단 관계자는 "문화는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니만큼 응원과 관심 속에서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은하수터널 새해 소망카드 주렁주렁

최근 '보성차별 빛축제' 행사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200만개의 LED전구로 조성한 은하수 터널안에 새해 소망카드를 달고 있다. 빛축제는 내년 2월 1일까지 45일간 열린다. <보성군 제공>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시가 9천 사할 기도원 적합 1억5천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공시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충청남도 대안군 해수욕장 펜션 최적합지 1984㎡(600) 감정7억7400 은행5억8천 감정가로 매도나 교환원함.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텔 대지 390㎡(118) 건물 1375㎡(416) 객실 33 은행 10억8천 교환가능 14억7천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주거지 6908㎡(2090) 대출 2억 이천만해감
- 누문동 상업지역 486㎡(147)와 주택 공시지가 2억3500 매도 3억천
- 전원주택, 별장부지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1645㎡(498) 2백평이나 3백평선 분할 매도 가능 평당 54만원

- 금매 광천동 터미널 인근 6층 건물 대지 661㎡(200)건평 3055㎡(924) 4층 133평은 공실 대출15억 전세 9억 월 500 회사 사옥 등 적합 25억

투자 매도 교환

- 금매 광산구 하산동 그린벨트 대지 건축물 대장 있음 950㎡(288)대출 9천 매도5백
- 금매 무인군 망운면 자연녹지 22238㎡(667) 대지 555㎡(168)대출 8천 매도 5백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집과 원룸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안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천 수익 8억7천
- 함평군 해보면 문장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전원주택지 남구 압촌동 대지 575㎡(174) 매도 1억8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산수시장 준주거 284㎡(87) 3억7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광산구 신촌동 284㎡(86)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7934㎡(2400) 남양유업인근 도로 좋은 공장, 창고 등 다용도 11억 지면 녹지와 주거지역 임
- 화정역 5분 거리 대지 645㎡(195)별장용 단독주택용 적합 3억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장

##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 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방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대지 및 전 2,148㎡ 건물 99㎡ 도로 및 환경양호 보림사 인근 매 2억3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접,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담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광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광동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려원,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감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1%대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에  
뭉치돈이 몰린다!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 노력

7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400만원씩을  
꼬박꼬박 받는다!

광주첨단지구  
유동인구 많은  
CGV영화관 옆  
3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상가 17억

010-2804-0632

NAVER 7년이상내 단비플라워 등 최우수상

## 단비플라워



축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